

남아시아 돕기 성금 줄이어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본사 2억3천여만원 모금...조계종에 전달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와 관련 본사에 성금접수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본사는 1월 19일까지 성금 2억3천80만원을 모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12월 26일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이후 본사에 모아진 성금은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여여선원(선원장 정여) 한국불교승가회(회장 무공)에 이어 최근에 한미음선원(원장 대행) 2억원,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1000만원, (사)자비봉사회(이사장 이강령) 자비원(이사장 부동) 150만원, 미얀마선원(원장 산디마) 50만원, 다르마법우회(회장 이만덕) 110만원등이다.

특히 본사에 성금을 기탁한 (사)자비봉사회 자비원, 미얀마선원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미얀마선원 원장 산디마 스님은 "미얀마 선원도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는 남아시아 불자들의 초지를 의뢰할 수 없어 법회에서 임시일만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모인인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과 '법륜 스님의 열린 길'에서 70만원과 100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과 '법륜 스님의 열린 길' 회원들은 인터넷 카페



본사 김광삼 사장(사진 왼쪽)이 1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에 개설한 성금 계좌와 직접 모금함을 이용해 조성했다. 1월 19일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구호지원 성금 1천만원과 옷 등 구호품 50박스를 본사에 기탁한 김재웅 법사는 "금강경을 읽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돕는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원우 · 김강진 기자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12~19일)

해인사현진 10만원, 보문정사유치원 100만원, 청주단공정사 30만원, 청주월명사 20만원, 청주북천암 30만원, 김화일 7만6400원, 대원사보통 10만원, 김화일 4만9500원, 권재연 1만5000원, 동해대원사 200만 7000원, 구암사경오 30만원, 최병현 10만원, 박해숙 10만원, 조미순 1만원, 김경자 10만원, 김해영 2만원, 원효사 100만원, 박병희 10만원, 김광희 2만원, 삼선포교원 150만원, 김지연 10만원, 신효인 10만원, 학도암 100만원, 김경숙 10만원, 김기경 20만원, 천안사담원스님 10만원, 류두희 2만원, 유정숙 5만원, 서일조 5만원, 박은희 1만원, 배주은 3만원, 수원포교당 700만원, 개운사각연스님 100만원, 개운사신도일동 32만5000원, 자비의탁발(중앙) 2864만1095원, 장정환 5만원, 오양모 2만원, 박정숙 20만원, 서해숙 30만원, 형성보광사 100만원, 김포금정사 35만2000원, 법정사 6만원, 교동화개사 25만1000원, 차봉기 20만원, 이훈영 5만원, 조정숙 10만원, 김순희 50만원, 박영국 3만원, 이정은 5만원, 황후기 1만원, 최종열 1만원, 최옥인 10만원, 정명선 10만원, 양기순 10만원, 진선 · 하진 · 재범 6만원, 범주사 총지선원대중 146만2000원, 월은사 10만원, 우홍스님 200만원, 악성암 50만원, 오상숙 1만원, 변상숙 1만원, 고영숙 1만원, 부산정원사 10만원, 최영아 3만원, 운문사사전반 13만원, 남한산성정장사 100만원, 동훈스님 1000만원, 포교원장도영스님 100만원, 교육원장정희스님 100만원, 청담북지관 직역 23만6920원, 이봉석 9만원, 천은사 30만원, 허미애 20만원, 치약산상원사 30만원, 김명중 5만원, 대구 반야정사 20만원, 서정숙 5만원, 대원 100만원, 이상달 11만원, 율종영 10만원, 이재도 3만원, 이기원 5만원, 범화 5만원, 정재화 5만원, 석경영 5만원, 목동법안정사 김중원 200만원, 박양규 5만원, 도봉산천축사 101만2000원, 신용경 20만원, 김석영 5만원, 소림사 강혜윤 100만원, 불교사회봉사회 100만원, 영주에서 10만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104만7000원, 망우산극락사 10만원, 송덕사 5만원, 굴산사 10만원, 불교여머니회 11만원, 이천내원사현종스님 100만원, 이경주 10만원, 신효성 30만원, 안성정원사 71만2000원, 율곡사 20만원, 손연옥 10만원, 용화굴 50만원, 해제동덕사 10만원, 대전성현사정은스님 50만원, 정봉숙 1만3000원, 김석영 5만원, 낙가사 30만원, 구룡사 153만원, 양명선 9만원, 박소현 12만원, 성곡사20만원, 진명숙 5만원, 부산정법사 20만원, 문경성불사 20만원, 무학사학봉스님 100만원, 은선사 10만원, 이명희 9만원, 삼척각로사 27만6200원, 방미애 5만원, 미선스님 100만6780원, 대원비구니정원회 636만9100원, 진여스님 50만원, 박서래 60만원, 진관사진관스님 1017만3000원, 김진자 4만원, 이은정 1만원, 하

지진·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각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 동참문의: (02)2011-1824-5
- 동참계좌: 국민은행 023-25-0011-991
- 예금주: (재) 불교중앙교원
- 농협 053-01-238894 예금주: (재) 불교중앙교원
-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연자 5만원, 신복사신도회 322만7320원, 전규원 5만원, 임옥숙 10만원, 김동숙 5만원, 덕산사현종스님 10만원, 이광선 3만원, 정도사 대광 100만원, 황명애 5만원, 손태원 5만원, 이하아나 10만원, 유인호 1만원, 정찬준 2만원, 민연지기홍보 20만원, 귀명혜 2만원, 김옥림 1만원, 부여비로사 100만원, 내성사 50만원, 변순옥 5만원, 장안정사지은 100만원, 한건희 30만원, 저비사 13만4000원, 한순달(금강암) 300만원, 주상숙 10만원, 보현사태연스님 50만원, 윤옥현 20만원, 안양지장선원 200만원, 성심사 200만원, 한미음선원(원장대행)전국지역 2억원,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1000만원,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1000만원, 여여선원(선원장 정여) 300만원, 한국불교승가회(회장 무공) 100만원, (사)자비봉사회(이사장 이강령)자비원(이사장 부동) 150만원, 미얀마선원(원장 산디마) 50만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회장 이만덕)3471/35기 110만원, 내이버책읽기모임카페 '붓다와 떠나는책여행' 70만원, 다음카페 '법륜스님의열린길' 100만원,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 200만원, 이정숙 50만원 (총 351,276,315원)

누적금액 470,333,025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골어촌 지렁이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령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시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시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시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중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함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포식**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할머니 상쾌하시죠?"

나눔단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회 선재팀

매주 한번 복지관찾아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이거 봐! 나를 어디로 데려가!" "아유, 할머니. 오늘 아드님도 오는데 깨끗하게 씻으셔야죠."

매주 화요일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4층 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실 앞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회 선재팀과 몇몇 할머니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 1월 18일에도 선재팀은 이미 10여명의 '얽힌' 할머니들을 목욕시킨 후 '때깅이' 김봉순(가명·72) 할머니를 데려가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욕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며 정성순(52) 팀장이 팔을 걷자 할머니들이 목욕할 때 활귀고 깨물어 만든 흉터가 드러났다. 2003년 11월부터 시작된 목욕봉사활동의 상채다.

선재팀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머니들의 하얗게 센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겨드리는 것은 할머니들의 건강과 '웃는 얼굴' 때문이다. 정신은 조금 놓았지만 씻은 후의 상쾌함까지 잊지는 않은 것이다.

우이동 도선사(주지 혜자)에서 기도와 전법을 함께하는 6명의 도반으로 만나 '봉사활동'의 뜻을 모았다. 그렇게 매주 할머니들을 목욕시키려 할 때마다 힘이 들고, 물 · 땀냄새가 되지만 부모 같은 분들을 돌봐드렸다는데서 느끼는 애뜻함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정자(54)씨가 목욕을 끝낸 이말순(가명·75)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선재팀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에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봉사는 해야 알아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행복, 절대 모른다니까요."

김강진 기자

새봄이 언니 힘내세요

청주 보문정사 유치원생 250여만원 전달

고사리손으로 풀풀이 모은 용돈이 범마와 싸우고 있는 여고생에게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사단법인 생령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1월 11일 충북 청주 보문정사부실유치원(원장 '덕주')에서 원아들이 저금통모으기를 통해 마련한 기금 2백52만9250원을 포함, 총 7백85만7490원을 이새봄(16, 본지 503호) 나눔의 손잡기(번 보도)에게 전달했다.

이새봄양은 골수조혈세포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 혈액질환인 '골수이형증'으로 지난해 12월 2일 골수이식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피부에 속주자 생겨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새봄양은 현재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김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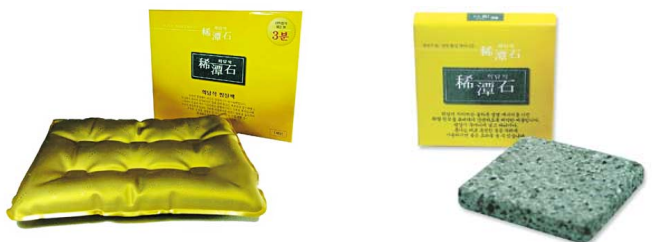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 을유년 설맞이 | 건강용품 특별기획전

희담보로 구매고객에게 희담석 좌복 무료증정 (2월28일까지)



■ **희담석 허리팩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40,000원 → 88,000원



■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38,0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만 이상의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지킴이** 20,000원
· 크기: 65 X 65 X 10mm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385mm X 355mm
· 색상: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좌복**
· 360,000원 → 298,000원
· 크기: 720mm X 390mm
· 색상: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 **스님용 희담 보로(보급형)**

희담 원석 중 원석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질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님용 보로는 어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평적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파손 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보로 사이즈**: (900mm x 1,900mm x 100mm)
- ▶ **희담석사이즈**: (600mm x 1,500mm) → (300mm x 300mm x 16mm) ⇒ 10개 원석의 두께: 1.6cm
- ▶ **보로의 외피**: 사우드 (고급 인조가죽)
- ▶ **온도조절기**: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로 면의 전파력 완전 차단

· 2800,000 → 1,980,000



■ **희담 보로(싱글)**

희담 원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너지 광양의 방사능력인데, 육(肉) 등 타 재료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광양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광양의 부파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부파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 ~ 60℃ 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 ▶ **보로 사이즈**: (1,000mm x 2,200mm x 100mm)
- ▶ **희담석사이즈**: (700mm x 1,800mm)
- 원석의 두께: 3cm(300mm x 300mm x 30mm) ⇒ 12개 (100mm x 300mm x 30mm) ⇒ 6개
- ▶ **보로의 외피**: 이타리 천연가죽
- ▶ **온도조절기**: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로 면의 전파력 완전 차단

· 4,000,000 → 3,200,000

* 행사기간동안 서울, 경인지역 설치비 무료, 그의 지역 10만원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1.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 신한카드 5만원이상 결제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2004. 2월 28일까지)
2.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차달력을 드립니다.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리터 액자를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주문전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